

# '각종 재난 관련 사고 ZERO 새만금' 추진

### 새만금청, 지진·장마 등 자연재난에도 새만금사업지역에는 큰 피해없이 철저히 대응 중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6~7월 기간 동안 발생한 지진 및 장마 등 자연 재난에 큰 피해가 없이 새만금은 여름철을 안전하게 넘기고 있으며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6월 12일 부안에서 진도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진도 3.1 규모의 여진을 포함해서 수 차례 여진이 발생하였다.

이번 장마기간에는 극한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많았고, 7월 9~10일에는 군산시 어청도 일대에서 1시간 동안 146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난해 청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많은 이차 전지기업이 입주하면서 산단 내 안전한 기업활동과 국민의 안전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지역에 자연재난



관련 특보(주의보·경보)가 발표되었을 때마다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새만금 현장을 긴급현장점검하여 자연재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다.

지난 6월 지진 때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인지한 즉시 새만금 인근 주요기반시설과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우발생 시에는 즉시 각 부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피해 있는지를 조

사하였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하였다. 더불어 전주국토사무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산단 입주기업과 긴밀히 연락, 안전한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새만금청은 이차전지 화학·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산단 내 화학·화재사고 발생 예방·대응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공장 화재사고 발생(6월 24일) 직후 새만금청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기업현장을 방문하

여 관련 현장점검을 지도하였으며, 산단 입주기업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방청·전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산단 내 발생할 수 있는 화학·화재 사고를 예방·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새만금에는 지진·호우에도 큰 피해 없이 안전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상대응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새만금 재난관련 사고 ZERO를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진발생 뿐만 아니라 긴 장마기간 동안 새만금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청과 각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이다."라면서, "8~9월 사이 발생할 수 있는 태풍에도 피해예방을 철저히 하고 산단 내 화학·화재사고 예방·대응에도 힘써, 기업들이 새만금에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1만호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PB센터를 본점 1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더 퍼스트 라운지' 오픈

### 전북은행 PB센터,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 강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PB센터를 본점 1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본점 3층에 위치했던 전북은행 PB센터는 '더 퍼스트 라운지 (THE FIRST LOUNGE)'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1일 오픈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더 퍼스트 라운지'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기를 통해 세무, 법률, 부동산 등 자산 서비스 및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위한 폐쇄된 전용 상담 공간 운영과 전담 PB(프라이빗 뱅커)가 배치되어 고객 개인의 재무 목표와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

해 최적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객들의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위한 최신식 대여금고 설치와 각종 세미나 및 문화공연 초청 등의 고객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PB센터 확장 이전을 통해 고객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미래성장 파트너로서 차별화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자산관리 전문 인력 육성에도 힘써왔으며, 이번 PB센터 이전 오픈을 계기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01만호기자

## "시평액 1조271억원, 전년보다 1206억원 증가"

### 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지부, 진흥설비·상아이엔지가 업종별 각각 1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유재영)는 지난달 31일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평가한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을 공시했다.

평가결과 도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체 시평액은 332개사 1조271억원으로 전년(9,065억원) 대비 1,206억원 증가했고, 주력분야별로는 기계설비공사 9,411억원으로 전년(8,227억원) 대비 1,184억원,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 1,294억원으로 전년(1,170억원) 대비 124억원으로 주력분야 모두 증가했다.

고급리와 유동성 악화로 인한 투자 위축과 민간건설공사 수요 감소, 원자

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도내 건설수주 감소와 건설경기의 대내외적인 악재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플랜트 및 산업설비의 유지보수공사 실적이 증가됨과 함께 지속경영 가능한 경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실적, 기술능력, 경영평가 등 전반적으로 상승된 것이 시공능력평가액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협회측은 분석했다.

기계설비공사 업체별 순위는 기계설비건설협회 중 전북지역 최초로 시공능력 600억원을 넘긴 진흥설비(주)가 2013년부터 12년 연속 1위를 유지, 작년에 이어 2위는 (유)동성엔지니어링, 3위는 (주)에이앤지가 차지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체별 순위는

많은 실적과 내실있는 경영환경으로 작년 대비 약 22억 상승한 (유)상아이엔지가 1위, 2위는 실적이 약 11억 상승한 (유)일진엔지니어링, 3위는 가스시설공사는 미흡하나 많은 기술자를 보유한 (주)한백종합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유재영 회장은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의 감소와 공사비 증가 등 건설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도내 발주기관과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더 많은 공사발주와 지역업체의 수주 지원, 하도급 확대를 통해 일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 전북상의협의회,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8곳... '역대 최저'

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북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의협회의 소협의회(회장 김정태)가 8월 1일 발표한 2023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분사를 둔 기업은 전년 대비 3개사

가 감소한 총 8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이 73.6%로 압도적으로 편중, 다음이 영남권으로 15.5%이다.

전북지역 1000대 기업의 감소는 새롭게 진입한 기업이 없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군산 소재 기업인 (주)세아씨엠과 UCISE(주), 완주 소재 비원스페이스 터케이엠(주)가 2023년 매출액 기준 순위권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기기자



### LX-철도공단, 지적측량 공간정보 기술협력 박차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어병소)와 국가철도공단(KR·이사장 이성해)가 국가철도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공간정보 공유 및 지적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LX와 철도공단은 지난달 31일 KR 수도권본부에서 국가철도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등의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와 철도공단은 국가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 재산관리 등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철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디지털트윈·BM·IoT 등 철도 분야 디지털 기술 협력 강화 △국가철도시설 업무 전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디지털국토플랫폼(LX플랫폼) 지원 및 양 기관 시스템 상호 연계 등도 진행한다.

/김옥기기자

### 전개공,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상생협력 간담회

전북개발공사는 1일 휴서기 기간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등을 위해 진행사업(익산 부송4지구 B블록 공공분양주택 건설공사, 김제 도시재생 중심거점시설 건립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근로자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등 상생협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여부 등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과 긴급상황 대비 체계 구축(응급처치 키트, 냉각용품 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운영중인 휴식공간(상시냉방) 및 휴서기 물품 등을 갖춘 폭염 대비 안전 쉼터에서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계절음



료와 간식 등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폭염 대비 상생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